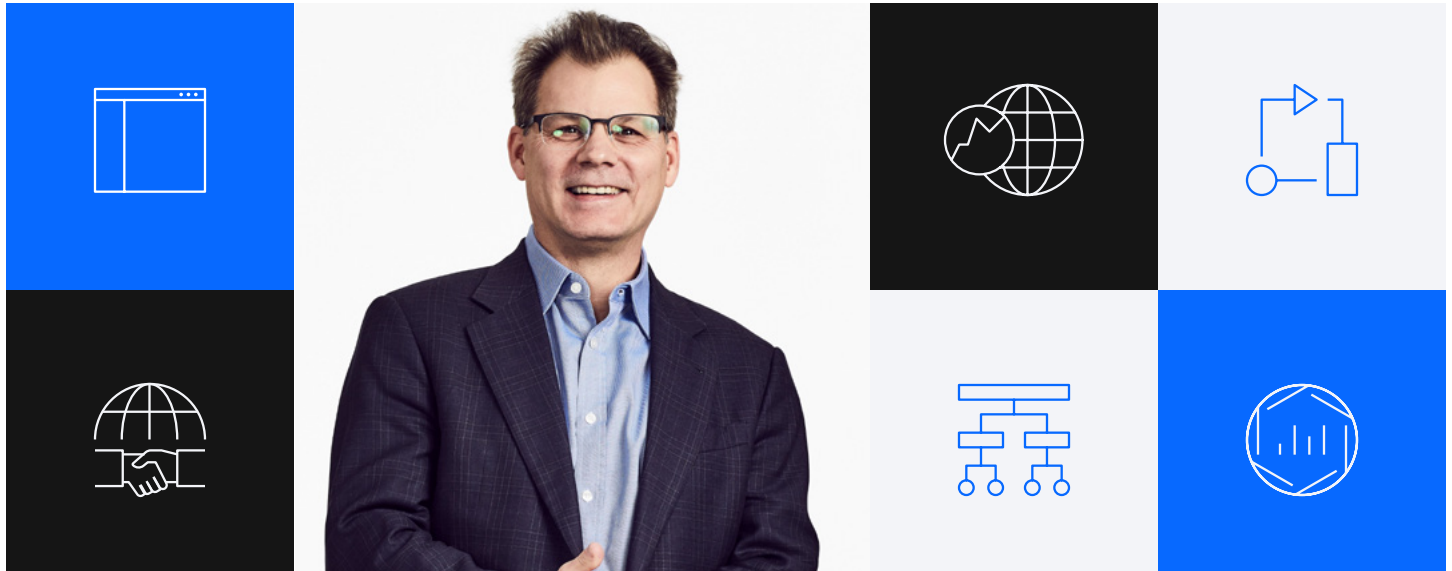


주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의 속도로 운영되도록 주요 앱 혁신

AI, 자동화와 같은 기술을 워크플로에 접목하여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비즈니스 혁신의 필수 단계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세요.



본 Q&A는 비즈니스 혁신의 트렌드를 조명하는 변화 중심의 관점(Built for Change Perspectives) 시리즈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BM.com/kr-ko/smarter-business](https://www.ibm.com/kr-ko/smarter-business)를 참조하세요.

Keith는 글로벌 거래 관리와 글로벌 서비스 조직의 혁신을 지원합니다. Zuora, C3.ai, SAP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Q: 현재 주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 혁신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인사 관리, 재무, 재고, 제조 등 모든 분야의 주요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연결하는 것은 비즈니스 혁신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선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고 기업 전체를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죠.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기업들은 방어 태세에 돌입하며 대부분의 혁신 프로그램을 보류시켰습니다. 중요한 부문에 기업의 자원을 집중하지 않으면 절반이나 감소한 제품 수요 때문에 즉각적인 수익 하락이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혁신은 비즈니스의 핵심 전략이라고 주장하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혁신 전략을 지속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들 회사의 상당수는 현재 업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Q: 분석을 말씀하셨는데요, 급격한 변동의 시기에 회사 전체의 데이터 흐름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까요?

데이터와 관련된 중요 과제 중 하나는 접근입니다. 데이터의 중요 조건인 신뢰성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필요한 시점에 올바른 사람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느냐로 이어질 것입니다.

데이터를 주요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고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들은 실시간 정보를 근거로 빠르게 중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스템에서 정보를 이용하여 제품 라인, 판매자, 공급망, 유통 채널 등 비교 데이터를 검토하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최종적으로 알고리즘 또는 AI가 최선의 결정을 제안해 주면 기술이 제시한 3가지 선택지를 보고 내 경험에 입각해 첫 번째를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데이터 통합과 접근을 통해 놓치기 쉬운 기회나 문제까지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Q: 인사이트의 속도로 운영한다는 표현은 IBM 용어를 사용한 건가요?

예. 예를 들어, 에너지 음료를 판매한다고 해보죠. 분석 기능이 날씬 등 많은 정보 출처의 실시간 정보를 끊임없이 통합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동 지역에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업체가 대처하기 전에 에너지 음료로 가득찬 운송 트럭을 북동 지역으로 빠르게 보낼 수 있죠.

Q: 비즈니스 혁신의 전반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IBM 고객들을 코그너티브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여정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강력한 혁신 기술과 지능형 워크플로를 이용하여 새로운 차원의 인사이트를 비즈니스에 불어넣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고요. 고객들이 이제껏 보지 못한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싶어요. SAP 기능은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전체 에코시스템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접근법과 검증된 방식을 적용하여 비효율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기업 전체에서 정보를 근거로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는 것이 비즈니스 혁신에 중요한가요?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모두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주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표준입니다. 데이터 흐름과 의사 결정의 속도가 빨라지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므로 비즈니스 혁신의 핵심 요소입니다. 기업들은 멀티 클라우드 전략의 유연성을 원합니다. 스스로 단일 플랫폼이나 기술 스택으로 한계를 짓고 싶지 않은 거죠. 또한 워크로드를 가장 효율적인 환경으로 이전하고 싶어하고요. 미래에는 여러 클라우드에서 각기 다른 워크로드를 실행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 회사, 특히 보안과 데이터 상주(data residency)를 중요시하는 조직은 여전히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높은 비중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유럽 연합을 비롯한 일부 정부는 데이터가 특정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되도록 규제하기도 합니다. 서버 공간은 대기업에게 또 다른 과제입니다. 어떤 기업은 엄청난 48테라바이트 인스턴스를 실행하도록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업체를 요구하는데, 그런 용량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요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고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들은 실시간 정보를 근거로
빠르게 중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Intelligent Industry Clouds가 이러한 조직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완전한 지능형 워크플로를 제공하고 글로벌 대기업에서 자주 요구하는 방대한 데이터 인스턴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BM은 각각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업계 컨소시엄을 시작하고 질문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가장 먼저 배포할 것인가, 가장 효과가 큰 방식은 무엇인가 등이죠. 그런 다음 SAP와 협력하여 각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지능형 워크플로를 구축하고 AI, 자동화와 같은 혁신 기술을 접목합니다.

이 솔루션은 산업 부문 중 제조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그 다음 부문은 통신입니다. 물론 Intelligent Industry Clouds는 Red Hat의 OpenShift와 Enterprise Linux를 사용하므로 이식성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기업은 원하는 클라우드에서 주요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